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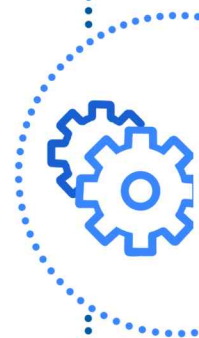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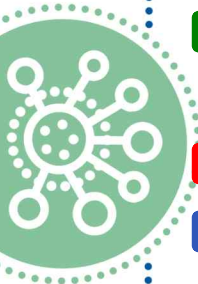




목 차

	글로벌 AI 동향	1
해외	- “애플이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4M AI 모델’ 첫 공개	1
	- AI 안전성, 인간과 AI 공존의 길	2
정책	- 옷차림·장신구 특징으로 실종자 찾는다... 제주, AI추적플랫폼 도입	3
기업	- “쓸수록 더 좋아” 생성 AI 만족도 증가 1위는 ‘영업’ 분야	4
	- AI가 과일도 골라주는 시대... “이제는 맛있는 과일 먹기 힘드실 겁니다”	5
	- 30조 중고 거래 시장...AI 옷 입고 똑똑해진다	6
	- 질병 진단·수술 보조에 간호까지... 의료로봇·AI 시대 활짝	7
	- 샌즈랩, 45억 규모 KISA ‘사이버 보안 AI 데이터셋’ 사업 수주	8
	- 자이메드, 눈으로 보는 경동맥·관상동맥경화 예측 AI솔루션 식약처 승인	9
	-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에 이용되는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제시	10





“애플이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4M AI 모델’ 첫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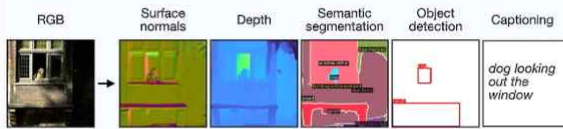
- 애플이 거의 모든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을 훈련할 수 있는 ‘4M(Massively Multimodal Masked Modeling)*’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

* 4M 모델은 텍스트, 이미지, 3D 장면 등 수십 개의 다양한 모달리티의 콘텐츠를 성능 저하 없이 처리하고 생성할 수 있는 범용 AI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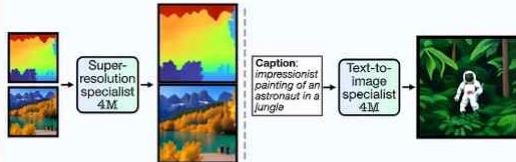
<4M 모델 개요>

A generalist vision model that can...

... perform a diverse set of vision tasks out of the box



... be easily fine-tuned into specialist varia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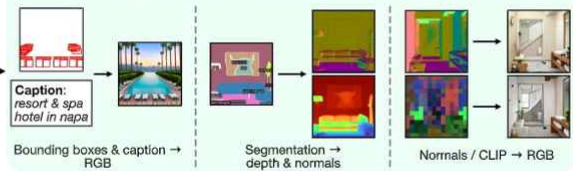


... transfer well to unseen tasks and moda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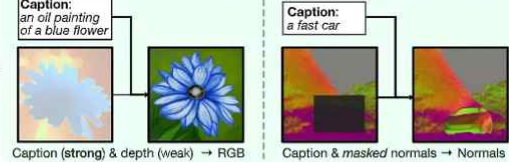


A multimodal generative model that can...

... generate any modalities conditioned on any other(s) ...



... with varying conditioning weights and from partial inputs ...



... enabling precise user control through multimodal editing chains



- 이는 애플의 전통적인 연구개발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자체 AI 기능을 과시하고 개발자 관심을 유도하여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 것으로,

- 자사의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함으로써 개발자와 연구자들의 4M 모델 활용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

- 한편, AI 윤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사용자 신뢰 유지 방안 모색 필요성 제기

- 애플은 그간 사용자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해 왔으나 고급 AI 모델이 요구하는 데이터 집약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과거와 같은 보호가 어려울 수 있음

- 애플은 최근 AI 파트너십 및 자체 AI 역량 강화에 집중해 왔으며 이번 ‘4M’ 데모를 통해 AI 분야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임

출처 : 인공지능신문(2024.07.03) “애플이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 훈련 위한 프레임워크 ‘4M AI 모델’ 오픈 소스로 첫 공개



AI 안전성, 인간과 AI 공존의 길

- 인공지능(AI)이 21세기 핵무기로 부상하면서 국가 안보의 주요 수단이자 위협으로 작용 중
 - AI 킬러로봇, 무인기 등 무인화된 살상 무기 개발과 활용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생성형 AI로 인한 허위 정보 확산도 주요 우려 사항
- 이에 따라, 각국 정부와 빅테크 기업들은 AI 안전성 강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
 - 미국은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AI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올해 2월에는 'AI 안전연구소 (US AISI, US Artificial Intelligence Safety Institute)'를 설립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AI 기술 표준화와 안전성 강화 조치를 추진
 - 유럽연합(EU)은 5월 'AI법'을 승인해 올해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해당 법은 AI 모델 활용 위험도를 단계별로 규제하고 규정 위반 시 최대 세계매출액의 7%까지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AI 안전·윤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AI 안전성 평가 체계를 만드는 등 책임 있는 AI 기술 개발과 활용을 위해 노력 중
 - 한국도 지난해 11월 'AI 안전 정상회의'에 이어 올해 5월 '서울 AI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AI 안전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관련 입법안 개정 예정

<각국 AI 안전성 강화 현황>



- 이처럼 각국은 인간과 AI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존을 위해 AI의 잠재적 위험성을 인지하고 AI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 중

출처 : 전자신문(2024.07.12) AI 안전성, 인간과 AI 공존의 길



웃차림·장신구 특징으로 실종자 찾는다...제주, AI추적플랫폼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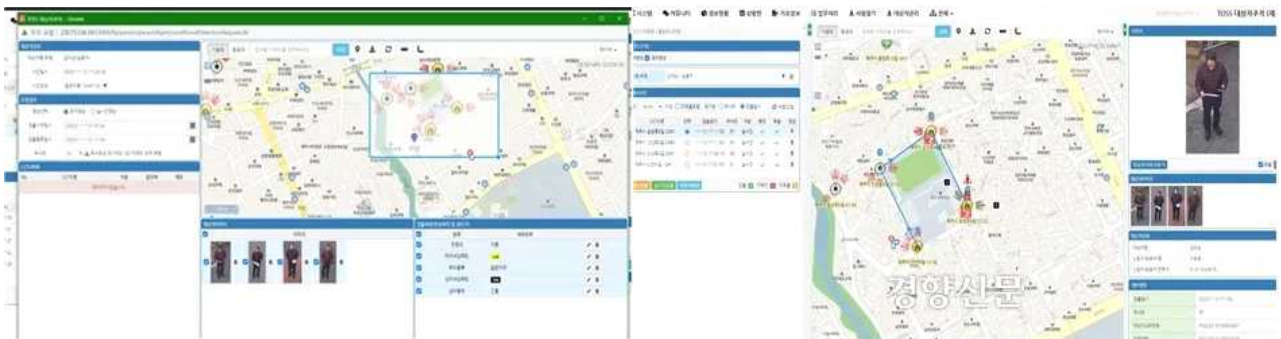
- 제주도는 실종자 신속 대응을 위해 'AI 실종자추적플랫폼(TOSS, Target Objects Scanning System)'을 도입

<AI 실종자추적플랫폼 메인화면>



- AI 실종자추적플랫폼은 CCTV 영상에 실종자의 특징(웃차림, 장신구 등)을 입력하면 AI 기술로 자동 분석하여 실종자의 이동 동선을 빠르게 파악 가능
 - 제주 CCTV 관제센터의 1만 8,466대 CCTV 영상을 활용하여 과거 300대분, 실시간 500대분의 영상을 동시에 검색 가능
 - 기존 관제 방식과 병행하여 활용하면 실종자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제주도는 AI 실종자추적플랫폼이 실제 사건에 직접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한 상태이고,
 - 경찰청과 협업하여 2022년 한 해 동안 제주 CCTV 관제센터에서 6,931건의 범죄·사건·사고 예방과 7건의 현행범 검거, 58건의 실종사건 중 2명을 찾는 데 도움을 줬다고 밝힘

<AI 실종자추적플랫폼*>



* CCTV 과거영상에 실종자 특징을 입력(사진 왼쪽)하면 이동 동선(사진 오른쪽)이 표시

출처 : 경향신문(2024.06.20) 웃차림·장신구 특징으로 실종자 찾는다...제주, AI추적플랫폼 도입



“쓸수록 더 좋아” 생성 AI 만족도 증가 1위는 ‘영업’ 분야

- 최근 글로벌 컨설팅 업체 베인앤드컴퍼니가 전 세계 200개 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성 AI 활용 만족도는 ‘영업’ 분야에서 가장 크게 증가
 - 생성 AI 활용 만족도는 영업 분야에서 가장 크게 상승하여 전 분기 대비 6%p 증가한 82%의 기업이 생성 AI 성능에 만족한다고 답변
 - 영업용 챗봇이나 세일즈 자동화 툴 등 영업 실무에 대한 생성 AI 활용성이 유용한 것으로 조사
 - 반면 법무 분야에서는 만족도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전 분기 대비 18%p 감소한 53%의 기업만이 AI 성능에 만족한다고 답변
 - 이는 법률 문서 작성이나 판례 분석과 같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서는 여전히 생성 AI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분석
 - 한편 소프트웨어 코딩, 마케팅, 고객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생성 AI에 대한 만족도가 4%p 상승했으며, 운영, 인사, 지식노동자 보조 업무 등에서는 전 분기에 비해 실망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
- 전반적으로 생성 AI 도입이 확산되고 있지만, 업무 분야에 따라 만족도의 변화가 상이
 - 단순 반복 업무나 초안 작성에는 유용하지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고난도 업무에서는 아직 한계가 존재
 - 국내 AI 전문가는 “영업과 코딩은 모범 데이터가 많아 생성 AI가 올바른 답을 내놓도록 다듬는 것이 비교적 쉽지만 법무 등의 분야에서는 실전 정답 자료가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
 - 그러나 향후 AI 기술이 발전한다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업종에서의 실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생성 AI를 이미 도입하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기업의 비율은 전 분기 83% 대비 87%로 늘어남에 따라 상용화를 위한 전문성과 안전성 제고가 필요
 - 생성 AI는 사람에 맞먹는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갖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기술 발전을 통해 전문성과 안전성을 제고시켜 생성 AI의 근본적 효용을 증대시켜야 함

출처 : 연합뉴스(2024.07.11) “쓸수록 더 좋아” 생성 AI 만족도 증가 1위는 ‘영업’ 분야



AI가 과일도 골라주는 시대...“이제는 맛있는 과일 먹기 힘들실 겁니다”

- 롯데마트에서 AI 과일 선별 시스템을 도입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고 밝힘
- AI 과일 선별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평균 이상의 과일’을 골라내는 것이 핵심
 - 소비자들은 단순히 당도가 높은 과일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선도, 모양, 숙성 정도 등 다양한 요소도 함께 고려
 - 참외의 경우 18장의 사진을 찍고 AI가 외형을 분석 및 평가하여 기준에 통과한 과일만 선별되며, 수박은 8개 각도에서 48장의 사진을 찍고 부피와 중량을 측정하여 속이 비어있는 수박을 걸러냄
 - 사람의 눈으로 구분할 수 없는 바이러스, 노균병 등도 AI가 분석해 걸러주기 때문에 안전성도 높음
- AI 선별 기술 도입 후 외형적 결함이나 신선도 저하가 현저히 적어져 소비자의 과일 구매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으며 향후 AI 선별 과일 종류를 더욱 늘려나갈 계획
 - AI 선별 시스템은 빅데이터가 쌓여갈수록 결과가 더 정확해져 더 좋은 과일 고르기가 가능해질 것이며 소비자 만족도가 더욱 향상될 것

<AI 과일 선별기의 과일 품질 확인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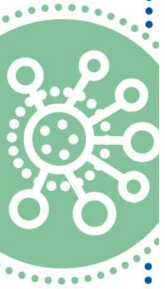


출처 : 동아경제(2024.07.01) AI가 과일도 골라주는 시대...“이제는 맛있는 과일 먹기 힘들실 겁니다”



30조 중고 거래 시장...AI 옷 입고 똑똑해진다

-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중고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며 그 결과 중고 거래 시장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 초기 '중고나라' 카페에서 시작된 중고 거래 시장은 모바일 플랫폼 중심의 2세대를 거쳐 현재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3세대 단계로 진화
 - * △1세대: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로 시작, 판매자-구매자 직접 연락/거래 △2세대: 모바일 플랫폼 등장 (번개장터, 당근마켓), IT 기술로 신뢰도 제고 △3세대: AI·빅데이터 활용, 정품 검수, 적정 가격 책정, 사기꾼 감지 등 기술 발달
 - 특히 중고 거래 플랫폼 '번개장터' 이용자 중 75%가 MZ세대로, 이들은 제품 소유보다 사용 경험을 중시하고 소득에 제한이 있어 중고 거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 따라서 MZ세대를 중심으로 중고 거래 시장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중고 거래 시장은 기술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
 - '번개장터'는 AI 기술을 활용해 사기 거래 유도 패턴을 인식하고 차단하며, 이미지 속 텍스트를 읽어내는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이용해 구매 희망자에게 주의 메시지 발송
 - '당근'은 경찰청에서 사기 발생 사례나 패턴, 사기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데이터를 받아 AI를 활용해 자동으로 사기 의심 거래에 대한 주의 문구 안내
 - '차란'은 AI를 통해 중고 의류의 적정 가격을 책정
- 중고 거래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기술 발전과 MZ세대의 수요 증가로 시장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
 - 국내 중고 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 원에서 2023년 30조 원으로 성장했으며 2025년 43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미국 중고 의류 시장 규모는 2022년 59조 원에 달하며 2028년까지 연 평균 11% 성장할 것으로 전망





질병 진단·수술 보조에 간호까지... 의료로봇·AI 시대 활짝

- 의료 로봇과 AI 기술의 발전으로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급격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2023년 700조 원을 넘어서 2032년에는 1,2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
 - 특히 AI·빅데이터·VR 등의 기술을 이용한 건강보조장치, 의료 로봇 등이 의료·헬스케어 산업 고도화에 큰 영향을 미치며 국내 의료기기 시장의 초고속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
 - 세브란스병원은 국내 최초로 로봇수술을 도입하고 세계 최초로 로봇수술 4만 건을 돌파했으며, 이를 이어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 중 최초로 인공관절 수술 로봇 'ROSA'를 들여옴
 - 고대구로병원은 세계 최초로 골반장기탈출증 단일공 로봇수술* 100건을 돌파하며 산부인과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 단일공 로봇수술: 배꼽 위에 작은 구멍을 1개만 뚫어 시행하는 수술로 흉터를 최소화하고 회복 속도가 빠름
 - 서울대병원은 혁신의료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첨단 기술 융합을 통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발전을 주도
 -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는 2009년부터 다양한 비뇨기질환에 로봇수술을 시행하면서 국내 최다 단일공 로봇수술 5,000건을 달성
- 이러한 AI 의료 로봇의 활용은 단순히 수술에 그치지 않고 조기 치료 및 예방, 진료 보조, 간호, 재활과 연구개발 효율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의료 로봇 전문기업 '큐렉소'는 의료 로봇에 AI를 접목한 인공관절 수술 로봇 '큐비스 조인트'를 개발, 로봇이 스스로 움직여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 '드림텍'은 미국 AI 기반 휴머노이드 개발업체들과 손잡고 AI 기반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및 의료용 로봇 개발·제조를 위한 제휴 체결
 - 미국 '엔비디아'는 헬스케어 기업 '히포크라테스 AI'와 함께 AI 의료 로봇 개발 중
 -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 의사의 지시에 따라 로봇이 직접 수술을 수행하는 시대가 머지않아 올 것으로 전망되며, 그에 따른 윤리적·법리적 문제, 특히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논의가 필요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4.06.20) 질병 진단·수술 보조에 간호까지... 의료로봇·AI 시대 활짝



샌즈랩, 45억 규모 KISA ‘사이버 보안 AI 데이터셋’ 사업 수주

- 샌즈랩이 수주한 ‘사이버 보안 AI 데이터셋 구축 및 활용 강화 사업’은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악용으로 인해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고도화된 사이버 보안 AI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
 -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사이버보안 분야의 AI 원천기술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보안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공격에 대해 자동화된 탐지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
 -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최신 악성코드, 위협 프로파일링 등 2종의 AI 데이터셋 구축 및 업데이트 지속 △데이터 수집·가공·구축 환경 마련, 품질검증 및 활용 실증 강화 △구축된 데이터셋의 공유 및 활용 촉진, 활용 확대 방안 발굴 △사이버보안 분야 전용 sLLM(소형언어모델) 개발 및 실제 보안 환경 적용이 있음

<공격그룹별로 생성되는 위협 프로파일링 데이터셋 정의 및 구성도>



- 국내 사이버보안 분야의 AI 기술 발전과 실무 적용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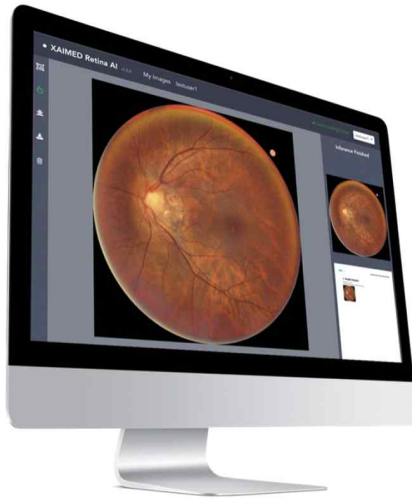
출처 : 보안뉴스(2024.07.01) 샌즈랩, 45억 규모 KISA ‘사이버 보안 AI 데이터셋’ 사업 수주



자이메드, 눈으로 보는 경동맥·관상동맥경화 예측 AI솔루션 식약처 승인

- 자이메드는 12년간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경동맥 및 관상동맥경화를 예측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허가를 받으며 국내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
 - 이전에는 발병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서 고가의 영상검사법이 필요했으나
 - 자이메드의 경동맥·관상동맥경화 예측 AI솔루션 ‘XAIMED Retina AI DL-FAS’는 간단한 안저 촬영만으로도 경동맥·관상동맥경화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음
 - 안저 사진에 담긴 망막과 혈관 정보를 분석해 경동맥·관상동맥경화 발생 가능성을 제시하므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관련 질병의 예방과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 혈관 내막에 콜레스테롤이 침착하고 세포증식이 일어나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증을 죽상동맥경화증이라 하며, 이는 주요 심혈관질환의 원인이 되지만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조기 발견이 중요

<자이메드의 동맥경화 예측 AI 솔루션 ‘XAIMED Retina AI DL-F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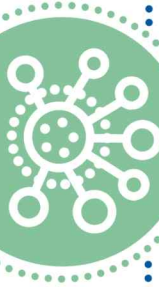
- AI 솔루션 개발을 위해 서울대학교병원과의 협력으로 1만 5,408개의 안저 사진 데이터가 활용되었으며,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
- 자이메드는 이번 식약처 인허가를 계기로 건강검진 기관들과의 납품 계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
- 자이메드는 더 다양한 AI 기반 의료기기 솔루션을 개발하며 인공지능 의료기기 선도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

출처 : 전자신문(2024.07.03) 자이메드, 눈으로 보는 경동맥·관상동맥경화 예측 AI솔루션 식약처 승인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에 이용되는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제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AI 기술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
 - 개인정보위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들이 AI 기술 개발에 주저하지 않도록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공개
-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 기업들은 블로그, 웹사이트 등에 있는 공개 데이터를 수집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활용해 왔음
 - 그러나 이러한 공개 데이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음
 - 기업 또한 공개 데이터가 대규모로 처리되는 상황에서 정보 주체 개별 동의나 계약 체결 등의 조항을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했음
 - 따라서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학계·산업계·시민단체와 소통하고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내서 제정
- 개인정보위는 공개 데이터 활용을 위해 만족해야 하는 요건과 함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안전성 확보 조치와 정보 주체 권리보장 방안을 안내
 - 공개 데이터 활용을 위해 만족해야 하는 세 가지 요건은 △인공지능(AI) 개발 목적의 정당성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구체적 이익형량
- 안내서는 추후 개인정보 관련 법령 제·개정,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추이, 해외 규제 정비 동향 등을 고려해 지속 업데이트될 예정



출처 : 개인정보위(2024.07.17.)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에 이용되는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제시